

■ 영상택배 시즌2 - 전봉준의 길을 걷다 2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녹두장군 전봉준 이야기입니다. 전봉준의 길 2부는 고부들판에서 올려퍼진 이 땅 민인들의 함성이 한반도 곳곳에 전봉준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기억과 흔적까지 이어집니다. 갑오년, 민인들이 들었던 햇불이 21세기 들어 광장의 촛불로 이어지는 길에 함께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넘어...(1927. 2. 15)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주의 진영은 민족유일당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90년 전 오늘 서울에서 그 깃발을 올렸다. 1926년 말 태동기 원안의 이름은 신간회가 아니라 신한회(新韓會)였다.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결사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허가하지 않자 신간회(고목에서 새 가지가 솟는다는 뜻의 '新幹出古木'에서 유래)로 개명했다. 1927년 1월 19일 신간회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된 3항의 강령도 원래 초안은

- I. 조선민족의 정치경제의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
- I. 민족적 단결을 견고하게 한다.
- I. 타협주의를 부인한다.

였으나 단체등록 허가과정에서 '조선민족'이 '우리'로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가 '각성을 촉진한다'로 '민족적 단결'이 '우리는 단결'로 '타협주의' 부인이 '기회주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당시 민인들은 당시 민중은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란 항목에서는 자치론자를 떠올렸고, 정치적 각성 등의 문구에서는 민족 독립을 떠올렸다고 한다.

단체 결성 후 얼마간 일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간회 결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산발적으로 일어날 민족운동이라면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것이 감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신간회 역시 다른 운동단체처럼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며 그럴 경우 민족운동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급속하게 번진 전국적 활동에 크게 당황했다. 신간회는 표면적으로 중앙집행부를 장악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40여 개에 이르는 지방조직의 회원 상당수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농민·청년 운동조직의 구성원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1928년 2월 열릴 예정인 정기대회를 금지했다. 이 대회에서 지역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의안들이 토론될 예정이었다. 일제가 내건 금지 이유는 "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신간회 창립대회 기사를 크게 보도한 1927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초대 회장을 맡은 이상재 당시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신간회 총무간사를 맡은 안재홍 당시 조선일보 주필(왼쪽).

이런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신간회 지회는 일제의 탄압을 대중투쟁으로 철회시키는 비타협적·전투적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주의 좌파가 장악한 신간회 중앙본부는 '온건화' 노선을 택했는데 총독부가 "신간회에 가입돼 있는 <조선일보> 사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복간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에 경도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29년에도 정기대회가 불허되자 신간회 각 지부는 1929년 6월 인근 지역대표의 대표를 뽑는 '복(複)대표대회'를 열어 새 임원을 뽑고 새 규약을 채택했다. 창립 당시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모인 의견의 결과는 반수 가까운 사회주의자가 간부로 뽑히고, 역시 사회주의자인 허헌이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허헌 체제는 일제 탄압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 이에 더해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고양시키려했던 '민중대회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민중대회 전 이를 파악한 일제 경찰은 일제히 주요 관계자를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허헌을 비롯한 신간회의 지도급 인사 44명과 조선청년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 사회운동 관계자 47명이 체포되었다.

대규모 검거 이후 신간회는 회원 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조직의 세가 확대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부였다. 새로 집행위원장이 된 김병로가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으로 기운 것이다. 김병로는 최린·송진우 등 자치론자들과 함께 신간회를 자치운동의 매개조직으로 삼으려 했고, 당연히 지방의 지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은 신간회 해소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조직은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해소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30년 부산지회를 통해서였다. 그러자 다른 지회에서도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 5월, 창립대회 이후 최초로 열린 전체대회를 통해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새 단체 조직을 안건으로 해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제 경찰의 강압으로 신간회는 완전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간회 해소 이후 민족주의 세력은 시련의 길로 들어섰다. 민족주의 진영 대부분이 1930년대 본격적인 친일로 들어섰다.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 인사들은 이후 더 이상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의 저항에 그치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신간회에 참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합법 공간을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스스로 차버리는 실기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는 지하로 들어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전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역사에서 가정만큼 부질없는 고민은 없겠지만 만일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도 반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으로 남았더라면 우리 현대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주체적인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2천만 민인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시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찾아온 8·15 해방을 준비없이 맞이한 민인들은 76년이 지난 뒤에도 분단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여근곡과 주사암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여근곡

대전 쪽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경주 직전의 건천 나들목을 1km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언제나 눈길을 끌던 곳이 여근곡(女根谷)이다. 여자의 음부를 쑥 빼닮아 일찍이 선덕여왕(善德女王) 「지기삼사(知機三事)」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다.

기온이 쑥 내려갔다. 유학사 갈림길에 차를 세우고, 일단 옥문지(玉門池)부터 찾아갔다. 그런데 이 샘은 1984년의 기억과 달랐다.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흥건하게 물이 괴던 그 옛날 그 모습이 아니다. '쌈들' 일명 '싹들'을 마주한 앞 동네 청년들이 몰래 찾아와 들쑤시던 샘이 분명 맞는데, 물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파이프 하나가 가까스로 쭈쭈쭈 물을 대는 형편이었다.



옥문지

당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촌로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기면, 이 샘이 횡액을 당한 해에는 반드시 마을 처녀들이 바람나고, 흉년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앞마을로 보복을 하러 갔다. 그건 앞마을에 우뚝 솟은 남근석을 자빠뜨리는 일이었다. 그래야 흉년이나마 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당바위

옥문지를 뒤로 하고 오봉산 자락을 탔다. 1시간 넘게 가파른 비탈을 오르자 땀이 났다. 잔설까지 쌓인 길은 제법 미끄러웠다. 도중에 산성이 길다랗게 누워있었으니, 다름 아닌 부산성(富山城)이다. 득오(得悟)라는 화랑이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를 불렀다는 곳이다.

능선의 전망대에 오르자, 시야가 툭 터졌다. 저기가 남근석이 있다는 앞마을인가? 풍흥을 다투다가 끝내는 투석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그 민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까? 마침내 당도한 오봉산 정상은 커다란 바위 하나를 앞세웠는데, 이를 부처님바위라고 부른다. 그 아래쪽이 천년고찰 주사암(朱沙庵)이다. 주사암은 도리 없이 바위틈을 골라 건물을 세웠다.

그런데 암자의 서쪽에 상상조차 아니 되는 널찍한 바위 하나가 허공을 깎아질렀다. 마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천 길 만 길의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에 수평의 자리를 넓게 연 이곳이 바로 마당바위다.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인데, 형상이 말할 수 없이 신비롭다.



주사암

암자 쪽에서 바라볼 때 더 실감이 나는, 기이하고도 기이한 형상이다. 어떻게 이 산의 꼭 대기, 어쩌면 이리 거대한 바위가 수직의 낭떠러지를 이루고, 어찌 이렇게 반반하게 생겼단 말인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조물주의 재주를 가늠할 길이 영 없었다. 그리고 낭떠러지 앞쪽에 달라붙은 바위 하나는 멀리서 볼 때 영락없이 달마 혹은 노승의 모습이다. 그것도 단정하게 앉아서 염불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당바위가 주사암을 이곳으로 불러왔단 말인가?

암자에 들르자, 친절한 주지 스님이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구경하고, 달력 하나를 챙겨가라 하신다. 와, 진신사리! 발걸음이 당연히 법당 안으로 들었으니, 영롱한 사리 대여섯 과가 빛을 뽐냈다. 하얀색·붉은색·초록색·노란색 등이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으니,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서 가슴이 절로 푸근해졌다.



주사암 진신사리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태종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릉에 들렀다. 매부와 처남의 능을 차례로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언니의 꿈을 산 문희(文姬)는 왕릉 뒤쪽에 왕비로 묻혔다지만, 동생에게 꿈을 판 보희(寶姬)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세 번째 이야기 “경주 남산의 동쪽 기슭”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